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

이다경 염시창[†]
전남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614명(남학생 264명, 여학생 350명)이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과 공격성 척도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 각각의 매개효과 및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를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과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았으나, 우울과 공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공격성은 낮아졌고,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졌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를 자아탄력성과 우울이 매개하는 구조모형의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관계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일부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과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격적인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장면에서 청소년의 공격성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어: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 중다매개효과

* 본 논문은 2015년도 이다경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염시창,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 sichang@jnu.ac.kr

최근 청소년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에 대한 우려가 높고, 공격적인 행동의 범위와 심각성이 날로 커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3)의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율은 2009년 4.6%에서 2012년 5.1%로 상승되었으며, 소년범죄 중 폭력에 관한 범죄자수는 2009년 29,488명에서 2012년에는 32,774명으로 증가하였다. 재범율도 2009년 35.7%에서 2012년 41.6%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성인 범죄자들은 아동기때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는 품행문제를 나타내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성향을 나타내어 성인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곽금주, 김연수, 2008)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공격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거치는 발달단계인 사춘기는 공격성이 증가하고 전 생애에 걸쳐 공격적 행동장애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이혜수, 정옥분, 2004).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성장과 전환의 시기로서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경험하는 혼란과 갈등의 시기이다(장휘숙, 2003).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부담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격한 표현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사춘기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학생 시기는 비교적 자제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이 덜 길러져서 그만큼 공격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홍명숙, 어주경, 2013).

공격성은 의도적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Berkowitz, 1993; Marsee & Frick, 2007), 자신이 지각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견해가 타인에게 부정되거나 도전받는다 생각할 때, 그 대상에게 공격적인 경향을 보인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공격성은 개인의 내·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하는 심리적 특성이다(서미정, 2014). 내적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특성, 기질, 성격, 부적응적 사고, 자아존중감 등이 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부모애착 및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의 지지, 대중매체, 사회의 구조적 요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온 것 중 하나가 양육태도이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내적·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윤진아, 2010에서 재인용).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양육태도가 냉정하고 거부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제재적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부모, 그리고 무관심하고 자녀의 공격적인 충동에 대해 허용적인 부모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자녀를 만든다고 하였다(Eron, 1982; Olweus, 1980). 반면, 부모가 수용, 민감, 지지, 인내, 관심, 친밀함 등의 온정적인 양육을 할 때 또래에 대한 아동의 공격성이 덜하였다(Mize & Pettit, 1997).

Rohner(1987)는 애정적 양육행동이 자녀를 간섭하고, 위협하며, 무시하고, 지시하며, 힘에 기초해 처벌하는 거부적 양육행동과 달리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애정을 표시하고 지지해 주는 행동이라고 하였다(조윤미, 2013에서 재인용).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란 자녀에게 칭찬을 잘해주고, 께안아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며,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장소영, 2012). 이는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신정, 김영희, 2007). Sears(1965)는 수용과 애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성장함에 따라 남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자기 방어의 필요도 느끼지 않아 행동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개방적이며 솔직하다고 하였다(조윤미, 2013에서 재인용). 이희자, 정영숙(1979)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은 낮아지며, 아버지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려성과 사회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서찬란(2005)은 부모의 일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하영희(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들이 갖는 효과를 살펴본다면 청소년의 공격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및 프로그램 개발 시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 중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을 선택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급격한 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든 청소년이 우울과 분노 등의 정서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다(박연성, 2009). 즉,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아이는 잘 견디고 적응하지만, 또 다른 아이는 환경에 굴복하고 발달적 이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때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힘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Cicchetti & Toth, 1991). 자아탄력성이라 함은 자기통제나 충동조절 등에서 융통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내·외적 상황의 요구에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후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김보라, 이규민, 2010),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공격성과 비행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 수준이 낮았다(장진아, 신희천, 2006; Huey & Weisz, 1997).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공격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자아의 긴장을 조절하여 감정을 추스르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적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조수현, 2013). 또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상황이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통제나 처벌이 아닌 합리적 설명의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김영민, 임영식, 2012), 부모가 온정, 돌봄과 지지, 높은 기대와 격려를 나타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다(Goodman, 1993; Smith, 1999).

그리고 청소년 폭력과 공격성을 가장 의미있게 예측하는 변인이 우울과 또래관계로 나타났다(Ferguson, San Miguel, & Hartley, 2009),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비행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었다(임양화, 오경자, 1989; Avenevoli & Merikangas, 2006). 즉, 우울 정서와 관련된 성마름(irritability)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 실패가 주위 사람과의 갈등 유발, 또래나 부모에 의한 거부 문제 등을 가져와서 적대감이나 실망감과 분노를 증가시키고, 결국 공격 행동을 하게 된다(Berkowitz, 1993; Kovacs, Paulauskas, Gatsonis, & Richards, 1988; Patterson, Mullins, & Ridley-Johnson, 1985). 곽금주와 문은영(1993)은 우울한 감정이 청소년 시기의 불안, 반항, 비행,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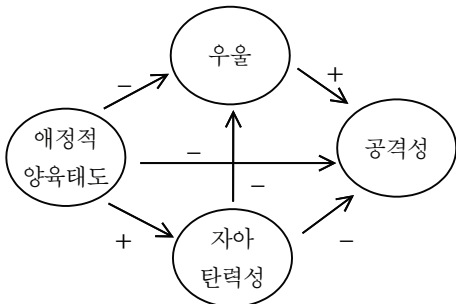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양육태도를 들고 있다. 유지혜(200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합리적이라고 지각할 때 청소년의 우울은 낮아지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할 때 청소년의 우울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우울증상이 낮으며, 부정적일수록 우울증상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우울은 낮아지며, 자아탄력성이 우울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하였다(한현아, 도현심, 2008; Hofer, Eisenberg, & Reiser, 2010). 이는 자아탄력성이 우울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선행하는 변인임을 추측하게 한다.

조계연과 이은희(2007)는 청소년이 부모의 돌봄적 양육태도를 높이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가 감소한다고 밝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그리고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201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여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역기능적 충동성에 영향을 미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애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공격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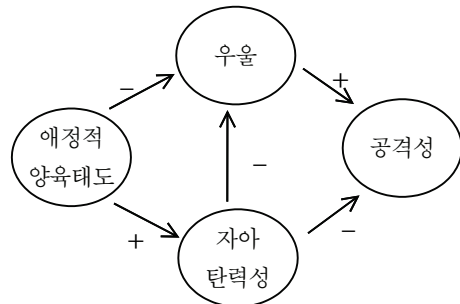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자아탄력성과 우울이 매개하는 중다매개모형을 설정한 후, 이러한 관계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애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애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면,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관계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 공

격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으로, 애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애정적 양육태도가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다매개경로를 포함한다. 그림 2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정한 경합모형(완전매개모형)이다. 경합모형의 설정근거는 부모의 자율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회적 기술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이영화, 김경연(2012)의 연구결과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인 한동현(2012)의 연구결과에 따랐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합모형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G광역시와 J도 H군에 소재한 3개 중학교 재학생 남녀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아 자료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94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 264명, 여학생 350명으로 총 614명(1학년 198명, 2학년 189명, 3학년 227명)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측정도구

애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제작된 ‘양육에 대한 나

의 기억'(my memories of upbringing) 척도의 스웨덴 동의어인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EMBU)의 단축형을 조한익(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EMBU(Arrindell et al., 1999)는 거부적 양육태도, 과보호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애정적 양육태도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조한익, 황정은(2012)의 연구에서 보고한 문항내적일관성지수는 .88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산출된 문항내적일관성지수는 .79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Atsushi, Hitoshi, Shinji와 Motoyuki(2002)가 제작한 'Resilience Scale' 영어판(Atsushi, Hitoshi, shinji, & Motoyuki, 2003)을 민동일(2007)이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심과 흥미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민동일(2007)의 연구에서 보고한 전체 문항내적일관성지수는 .90이었고, 이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내적일관성지수는 .88이었다.

우울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경주,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수정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경주(2004)와 김선우(200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긍정적 감정을 제외한 우울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3개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 문항 4개를 제외한 총 16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전경주 외(2001)의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내적일관성지수는 .91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내적일관성지수는 .87로 나타났다.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Durkee(1957)가 제작한 BDHI(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를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수정한 검사를 기반으로 한세리(2007)가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공격성, 적의성, 언어적 공격성·의심, 분노감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5점 Likert 척도에서 평정되었다. 이성학(2012)의 연구에서 보고한 전체 문항내적일관성지수는 .85이며, 이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문항내적일관성지수는 .87이다.

연구절차

이 연구는 2014년 1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G광역시와 J도 H군 남녀 중학생 61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지필형 설문 조사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급에서 학생이 스스로 문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실시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응답시간은 25~45분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IBM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다음,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우울이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다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을 설정하고, AMOS 20.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ices)인 χ^2 값과 비교 적합도 지수(comparative fit indices)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모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검토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 각각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모형(phantom model) 상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Rindskopf, 1984).

연구결과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인별 분포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왜도의 절대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이 8.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Kline, 2010).

<표 1>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②	.68***											
③	-.10*	-.12**										
④	-.18***	-.19***	.43***									
⑤	-.07	-.08*	.52***	.46***								
⑥	-.19***	-.21***	.57***	.57***	.58***							
⑦	.31***	.38***	.05	-.02	.06	-.06						
⑧	.29***	.31***	-.18***	-.24***	-.21***	-.38***	.51***					
⑨	.39***	.39***	-.13**	-.20***	-.16***	-.25***	.52***	.52***				
⑩	-.14***	-.16***	.09*	.35***	.12**	.29***	-.11**	-.24***	-.22***			
⑪	-.17**	-.16***	.18***	.35***	.17***	.29***	-.11**	-.22***	-.24***	.61***		
⑫	-.11**	-.13**	.13**	.40***	.14***	.26***	-.09*	-.16***	-.20***	.66***	.50***	
M	11.19	10.81	15.18	12.09	13.35	7.76	25.05	26.20	21.66	9.81	11.34	2.80
SD	2.62	2.50	4.33	3.36	3.94	2.68	4.76	4.73	4.10	3.41	3.12	1.19
왜도	-.10	-.08	.16	.22	.22	.59	.09	.37	.04	1.49	.83	1.51
첨도	-.52	-.49	-.25	-.13	-.43	-.28	-.40	.15	-.60	1.86	.33	1.78

* $p < .05$. ** $p < .01$. *** $p < .001$.

주) ①애정1 ②애정2 ③신체적 공격 ④적의성 ⑤언어적 공격 ⑥분노감
 ⑦홍미다양성 ⑧감정조절 ⑨미래지향성 ⑩우울감정 ⑪신체 및 행동둔화 ⑫대인관계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의 관계모형 검증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 모형 모두 TLI와 CFI의 값이 .90보다 높고, RMSEA가 .08에 근접하여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 간 χ^2 값의 차이가 1.98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도를 감안할 때 간단한 모형인 경합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되었다. 경합모형의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2>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의 관계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239.836	48	.000	.906	.933	.081
경합모형	241.816	49	.000	.907	.931	.080
비교	1.98	1	.159			

<표 3>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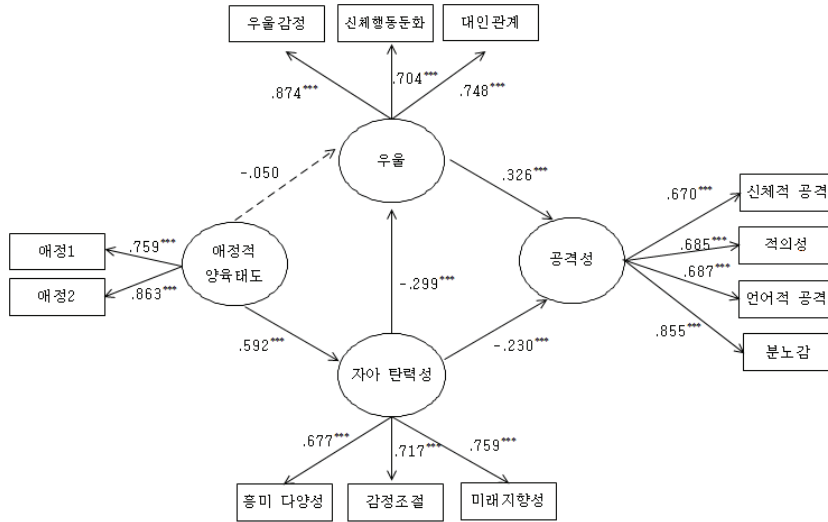
경로	비표준화 계수(<i>b</i>)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β)	<i>t</i>
애정적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854	.081	.592	10.501***
애정적 양육태도 → 우울	-.069	.089	-.050	-.775
자아탄력성 → 우울	-.287	.065	-.299	-4.410***
자아탄력성 → 공격성	-.215	.048	-.230	-4.442***
우울 → 공격성	.318	.050	.326	6.320***

*** $p < .001$.

표 3에서 보듯이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b = -.069, t = -.775, p > .05$)를 제외하고,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자아탄력성에 이르는 경로($b = .854, t = 10.501, p < .001$),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b = -.287, t = -4.410, p < .001$), 자아탄력성이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b = -.215, t = -4.442, p < .001$), 우울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b = .318, t = 6.320, p < .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지각된 애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공격성은 낮아지며,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애정적 양육태도는 우울과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관계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팬텀모형상에서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추정값 = $-.183, 95\% \text{ CI}(-.283, -.095)$). 그리고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추정값 = $-.078, 95\% \text{ CI}(-.140, -.037)$).

<표 4>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중다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i>p</i>	95% 신뢰구간
애정적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 공격성	-.183	.047	.004	(-.283, -.095)
애정적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 우울 → 공격성	-.078	.024	.008	(-.140, -.037)



*** $p < .001$.

[그림 3]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의 관계모형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의 성별 관계모형 검증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이 매개하는 구조모형의 경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집단을 구분하고 관계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5와 표 6에서 보듯이, 두 집단 모두에서 RMSEA가 .10 보다 작았고, 남학생은 TLI와 CFI의 값이 .90보다 높았으므로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TLI가 .90보다 낮았지만 CFI의 값이 .90보다 높았으므로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연구모형과 경합모형 간 χ^2 값의 차이가 4.109로 유의하여 연구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하였다. 반면 여학생 집단의 경우, 연구모형과 경합모형 간 χ^2 값의 차이가 0.082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합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하였다. 그리고 남녀 집단에서 산출된 경로계수는 표 7 및 표 8과 같다.

<표 5> 남학생 집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한 관계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121.658	48	.000	.912	.936	.076
경합모형	125.767	49	.000	.910	.933	.077
비교	4.109	1	.043			

<표 6> 여학생 집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한 관계모형 적합도

모형	χ^2	<i>df</i>	<i>p</i>	TLI	CFI	RMSEA
연구모형	183.712	48	.000	.891	.921	.090
경합모형	183.794	49	.000	.894	.921	.089
비교	0.082	1	.775			

<표 7> 남학생 집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i>b</i>)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β)	<i>t</i>
애정적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817	.125	.582	6.529***
애정적 양육태도 → 우울	-.073	.120	-.057	-.611
애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236	.118	-.198	-2.000*
자아탄력성 → 우울	-.237	.090	-.258	-2.636**
자아탄력성 → 공격성	-.027	.087	-.032	-.309
우울 → 공격성	.194	.070	.210	2.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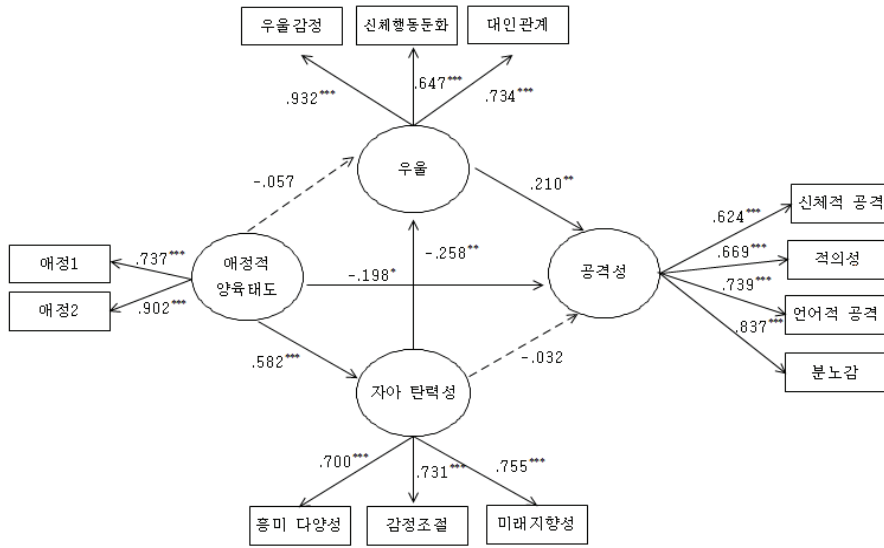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여학생 집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i>b</i>)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β)	<i>t</i>
애정적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883	.107	.594	8.292***
애정적 양육태도 → 우울	-.075	.123	-.052	-.613
자아탄력성 → 우울	-.323	.088	-.334	-3.673***
자아탄력성 → 공격성	-.266	.068	-.263	-3.927***
우울 → 공격성	.419	.071	.400	5.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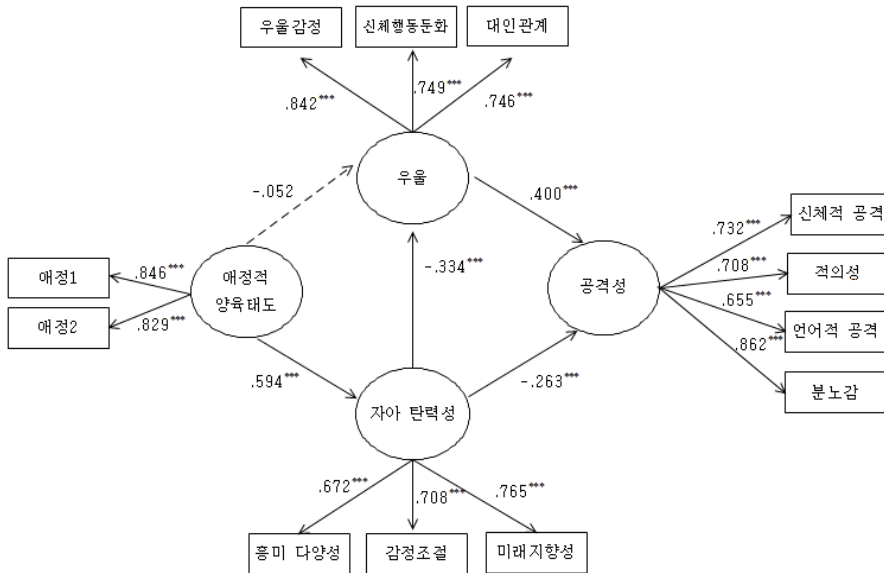
*** $p < .001$.

표 7과 표 8에서 보듯이, 남학생 집단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자아탄력성에 이르는 경로,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 자아탄력성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 우울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 자아탄력성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여학생 집단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자아탄력성에 이르는 경로, 자아탄력성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 자아탄력성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 우울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남녀 각 집단의 관계모형은 그림 4 및 그림 5와 같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남학생 집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의 관계모형



*** $p < .001$.

[그림 5] 여학생 집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의 관계모형

남녀 집단의 팬텀모형상에서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9 및 표 10과 같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을 중다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정값=-.038, 95% CI(-.158, -.009)). 여학생 집단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추정값=-.235, 95% CI(-.329, -.063)),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을 중다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정값=-.119, 95% CI(-.235, -.056)).

<표 9> 애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한 모형에서 남학생 집단의 중다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p	95% 신뢰구간
애정적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 우울 → 공격성	-.038	.028	.007	(-.158, -.009)

<표 10> 애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한 모형에서 여학생 집단의 중다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p	95% 신뢰구간
애정적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 공격성	-.235	.064	.026	(-.329, -.063)
애정적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 우울 → 공격성	-.119	.041	.005	(-.235, -.056)

논 의

이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우울과 공격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분석결과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박성민(201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부모 각각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양육행동과 아동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정인선(2006)의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는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온정

· 수용성이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인섭(2012)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부와 모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모의 긍정적 양육행동도 제한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와 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다르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부와 모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살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와 모를 구분해서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이고 성취적으로 지각할 때 자아탄력성이 높았다고 보고한 이윤주, 신지연(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함께 칭찬과 격려를 하는 등의 애정적인 태도로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탄력성을 갖게 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애정적 양육태도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자기통제의 완전매개효과를 보고한 최윤경(2011)의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애정적 양육태도보다는 다른 요인에 더 큰 비중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최윤경(2011)의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정적 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공격성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전혜선, 2013; 조수현, 2013)를 지지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특성인 자아탄력성과 공격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자아탄력성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이준기(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우울은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우울이 높으면 공격성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태순, 강차연, 2008; 정주영, 2014; 주지영, 2005)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로 인해 겪게 되는 정서적인 문제가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아지며, 높은 자아탄력성은 공격성 수준을 낮게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의 돌봄적 양육태도를 높이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게 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가 감소한다고 밝힌 조계연과 이은희(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Svanberg(1998)는 아동초기에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형성된 안정애착이 자아탄력성의 형성에 근간이 되며, 이러한 자아탄력성이 자녀들이 많은 부정적 생활사건들을 잘 대처하도록 하여 심리적 증상 없이 성인기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애정적 양육태도가 안정적 애착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자아탄력성을 형성하고 발전시켜서 정서·행동적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 결과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하고, 청소년의 공격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덟째,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역할을 할 수 없었다. 선행연구(장여옥, 2015; 전주람, 2014)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매개변수나 조절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통제를 매개변수로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통제가 높아지고, 자아통제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하였다(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이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제3의 변인이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홉째,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을 높게 하고, 높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우울을 적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국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직접 비교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선행연구(장진아, 신희천, 2006; 조계연, 이은희, 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박원주(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매개변수로 기능함으로써 다양한 부정정서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열번째,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직

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우울에 영향을 미쳐 결국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와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를 통해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의 공격성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직접 영향을 받고, 남녀학생 모두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아탄력성과 우울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남녀 집단의 성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중요성이 부각된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및 우울 변인으로 제한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또래, 학교 문화, 지역사회 등 환경적 맥락과 부정적 사고, 스트레스, 정서조절,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변인과 같이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한다(윤진아, 2010; 전해선, 2013).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관계모형 검증을 시행한 후, 탐색적으로 남녀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우울 및 공격성에 관한 관계모형에서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탐색적 비교를 넘어서서 남녀 집단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를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았다.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구분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우울의 정의를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거나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여, 우울 측정변인 중 부정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 감정요인을 제거한 후 연구하였다. 따라서 우울 구인을 구성하는 일부 요인이 누락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 척도의 긍정적 감정요인의 포함유무에 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박금주, 김연수 (2008). 발달적 관점에서 본 정신병질: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71-89.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보라, 이규민 (2010).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8(3), 1-24.
- 김선우 (2009). 가족, 학교, 인터넷사용 환경요인과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간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영민, 임영식 (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 의존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태순, 강차연 (2008). 고등학생의 우울과 공격성. 심리치료, 8(1), 85-100.
- 문경주 (2004). 청소년기 자율성 욕구와 부모 허용간 불일치가 우울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민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불안,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성 (2009). 남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221-234.
- 박원주 (2011).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긍정 정서 및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정 (2014).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기본심리욕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찬란 (2005). 가족 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유지혜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아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학 (2012). 청소년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심리적 변인(우울, 공격성,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화, 김경연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 50(2), 1-10.
- 이윤주, 신지연 (2006).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부적응,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5, 111-127.
- 이준기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수, 정옥분 (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1), 47-62.
- 이희자, 정영숙 (197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관심도와 자녀의 인성과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2), 101-103.
- 임양화, 오경자 (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69-76.
- 임인섭 (2012). 중학생의 부모양육행동 지각, 정서능력, 외현화 문제행동의 성차 및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여옥 (2015).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현화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2), 199-221.
- 장소영 (2012).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의 행복감과 공동체의식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장휘숙 (2003). 애착장애의 치료: 이론에서 실제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주람 (2014). 아동의 탄력성,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35-153.
- 전혜선 (2013).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고와 자아탄력성 및 공격성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선 (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주영 (2014).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237-263.
- 조계연, 이은희 (2007). 초기 청소년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 조수현 (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애착이 1년 후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미 (2013).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황정은 (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간의 관계: 정서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4), 27-52.
- 주지영 (2005). 고등학생의 분노 표현 방식, 우울 및 공격성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201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관계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학회지, 25(2), 121-132.
- 한동현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세리 (2007).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협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홍명숙, 어주경 (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애,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 Arrindell, W. A., Sanavio, E., Aguilar, G., Sica, C., Hatzichristou, C., Eisemann, M., Recinos, L. A., Gaszner, P., Peter, M., Battagliese, G., Kallai, J., & van der Ender, J. (1999). The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EMBU: Its appraisal with students in Greece, Guatemala, Hungary and Ital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613-628.
- Atsushi, O., Hitoshi, N., Shinji, N., & Motoyuki, K.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35, 57-65.
- Atsushi, O., Hitoshi, N., shinji, N., & Motoyuki, K. (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ical Report*, 93, 1217-1222.
- Avenevoli, S., & Merikangas, K. R. (2006). Implications of high-risk family studies for preven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6), 126-135.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1), 343-349.
- Cicchetti, D., & Toth, S. L. (1991). The making of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ist. In J. Cantor, C. Spiker, & L. Lipsitt (Eds.),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Training for diversity* (pp. 34-72). Norwood, NJ: Ablex.
- Eron, L. D. (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y*, 37, 197-211.
- Ferguson, C. J., San Miguel, C., & Hartley, R. C. (2009). A multivariate analysis of youth violence and aggression: The influence of family, peers, depression, and media violence. *Criminal Justice Review*, 6, 904-908.
- Finkenauer, C., Engels, R. C. M., & Baumeister, R. F. (2005).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 Goodman, T. M. (1993). *Resiliency in parentally bereaved children and adolescents*. M. A.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 Hofer, C., Eisenberg, N., & Reiser, M. (2010). The role of socialization, effortful 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French adolescents'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3), 555-582.
- Huey, S. J., & Weisz, J. R. (1997).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04-425.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 Kovacs, M., Paulauskas, S., Gatsonis, C., & Richards, C. (198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II: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3), 205 - 217.
-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969-981.
-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 291-311.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1), 644-660.

- Patterson, L., Mullins, L. L., & Ridley-Johnson, R. (1985). Childhood depression: Peer reactions to depression and life str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3, 597-60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indskopf, D. (1984). Using phantom and imagery latent variables to parameterize constraints in linear structural models. *Psychometrika*, 49(1), 37-47.
- Smith, G. (1999). Resilience concepts and finding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Therapy*, 21(2), 154-158.
- Svanberg, P. O. G. (1998). Attachment, resilience and preven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7, 543-578.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and Aggression

Lee, Dageong Yum, Sich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depression in relation to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and aggression. This study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614 middle school students (264 male students and 350 female student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research hypotheses. Bootstrapping procedure was applied to test the mediated effects and th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and aggres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s. Analyses on the relations between affectionate parenting, ego-resiliency, depression and aggression showed that as the affectionate parenting scored higher, ego-resiliency also increased. However, affectionate parenting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When ego-resiliency was high, on the other hand, depression and aggression decreased, and when depression was high, aggression increased. The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mediated effect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 of affectionate parenting and aggressiveness was insignificant, the mediated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th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depression were evident. An additional analyses need to be conducted on each of the male and the female groups,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and aggression with ego-resiliency and depression as mediators.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several gender differences in paths within the model.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how affectionate parenting could affect adolescent ag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not only a more concrete and empirical explanation on the mechanism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and aggression but also a solid knowledge base for the intervention programs for aggression reduction and parent education on adolescent aggression.

Key words: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ego-resiliency, depression, aggression, multiple mediated effects.